

매월 1일 1회 발행 제 39 권 제 12 호 통권 468 호 1993년 12월 1일 발행(1955년 3월 18일 제 3 종 우편물(나)급인가) 국유철도특별증인잡지 제 39 호 발행소·서초구 서초동 1361 의 5 (株) 現代文學(11317-0770)

現代文學



정답 올해의 소설 다양성 속의 혼돈과 가능성
새연재 유종호의 지상강좌/시란 무엇인가
예고 시드니·안정효 공동집필 소설 「피리소리」

12

과학자와 시인



申 菊 朝
(서울대 교수·화학)

얼마 전에 내한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만 교수는 「분자세계와 미학」이라는 제목의 일반 강연을 하였다. 또한 그의 방한 일정 속에는 그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미당 서정주 시인과의 만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두 권의 시집을 낸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와 국내 원로시인과의 만남은 따라서 세간에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호프만 교수와는 달리 조용하게 시를 쓰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 중에는 문단의 정식 추천과정을 거쳐 등단하고 몇권의 자작시집을 출간한 이도 있다. 또한 취미로 시를 써서 시집을 낸 이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장편소설을 집필한 과학자는 없는 것 같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분야가 아닌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어눌하고 무뚝뚝한 과학자들이 시를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학자의 관심의 대상은 자연이고 시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복잡한 자연현상의 정수를 간단한 법칙의 형태로 추출하는 것이 과학자의 역할이고 주옥 같은 한 편의 시로 만리장성과도 같은 인간의 사연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는 간추림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가 발견한 자연의 법칙은 누구

에게나 똑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시인이 발표한 시는 독자에 따라 제각기 서로 다른 느낌으로 음미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맥스웰이 완성시킨 고전 전자기학은 네 개의 깔끔한 방정식으로 요약된다. 제아무리 두꺼운 전자기학 교재도 결국은 이 네 개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응용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맥스웰 방정식은 사행시이며 두꺼운 교재는 소설이라고 비유한다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야말로 대하소설 <고전역학>을 단행시로 간추린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학자는 타고난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다만 모든 독자에게 천편일률적인 느낌을 강요하는 따분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삶을 추구하는 과학자도 있다. 과학자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그들도 시인의 시를 즐겨 낭송한다. 마음에 드

는 시를 섭렵하다보면 그들에게도 무언가 자신의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북받쳐오를 것이다. 자연법칙이 아닌 진정한 시를, 시문학수업을 받지는 못하였어도 간추리는 훈련은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이다. 그들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틈타 어쩔 수 없이 불려지는 소박한 노래를 부른다고 탓하지 말자. 수줍게 그리고 진솔하게 선보인 그들의 시집을 누군가가 읽고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반드시 미당 선생이 아닌들 어떠랴.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한편의 시집으로 승화시켜 발산하는 인간적인 과학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

아놀드 베네트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영국 최고의 지성인 저자의 명저 <현명한 삶의 방법>을 옮긴 이 책은 인생의 질을 높이며 항상 전향적으로 사는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

번역판·265·3,500원(株)現代大學